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대학생의 문화교육 인식 및 요구도 분석

양미애*

〈차 례〉

1. 서론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자료 분석
3. 연구 결과 및 해석
 1) 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2) 문화교육에 대한 요구도
4.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외국어 교육은 목표언어와 본국 언어 간에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대조 분석할 수 있어야 흥미와 호기심이 충족됨으로서 문화교육 효과가 높아진다.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해당 문화의 이해를 통해 학습자들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를 인식하는 시각과 관점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알고 싶어 하는 문화 항목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

* 전남대학교 불문과

므로, 문화교육에 학습자들의 인식 및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문화교육 인식 및 요구도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문화교육 실시와 문화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학생들의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문화교육의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교육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문화교육의 기초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라 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문화교육 시에는 학생들의 외국어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화교육의 내용은 단지 학생들의 흥미 위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욕구와 필요, 지적 수준에 맞는 내용을 학습하게 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외국어 전공, 문화 교육, 대학생, 문화교육의 인식, 문화교육의 요구도.

1. 서론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문화를 인간의 삶의 양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언어는 문화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언어는 다른 삶의 양식들과 함께 존재하면서, 그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언어는 인간이 문화를 향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므로 문화 없는 언어, 언어 없는 문화란 상상할 수 없다(임경순, 2006). 이와 같이 언어는 그 사회구성원들의 경험의 소산이고, 사회의 실체는 언어습관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언어를 알아야 하며,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실체 및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언어교육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익히는 것이 주 목적이다. 1970년 이후로 언어교육에 있어서는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우한용, 1999; 윤여탁, 2000, 김대행, 2003; 권오현, 2003; 조항록, 2004; 임경순, 2005). 언어교육은 단순히 언어의 원리나 문법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가치관, 제도 등의 이해를 통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2006) 향상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서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언어와 문화를 접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가치관 등을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게 되고, 그 결과 세계를 보는 시각이 유연해지기 때문이다(주시동, 2012).

이런 점에서 볼 때, 외국어 학습에서 보다 발전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그 목표언어의 문화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외국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에 대한 이해력도 한층 높일 수 있으므로,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언어와 더불어 문화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최상의 목적은 외국의 우수한 사상과 제도, 문학과 문화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정신을 이해하게 하는 것 등으로서 목표언어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도 더욱 문화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목표언어와 본국 언어 간에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대조 분석할 수 있어야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됨으로서 문화교육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해당 문화의 이해를 통해 학습

자들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를 인식하는 시각과 관점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문화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알고 싶어 하는 문화 항목을 가르치는 것(민현식, 2006)이 중요하므로, 문화교육에 학습자들의 인식 및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문화교육 인식 및 요구도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문화교육 실시와 문화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C대학교 학부 1, 2, 3, 4학년 재학생이며 총 217명을 연구대상자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217명 중 성별로는 여학생이 76.5%로 남학생 23.5%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학년 28.1%, 3학년 17.5%, 4학년 12.9%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전공 여부별로는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59.9%, 그렇지 않은 학생 40.1%로 나타났다.

어학연수 경험 유무별로는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학생이 85.3%로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학생 14.7%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어학연수 체류기간별로는 1개월 정도가 4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개월 정도 25.0%, 1년 이상 18.8%, 1개월 정도 12.5%, 6개월 정도 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51	23.5
	여	166	76.5
학 년	1학년	90	41.5
	2학년	61	28.1
	3학년	38	17.5
	4학년	28	12.9
외 국 어 전공여부	외국어 전공	130	59.9
	외국어 비전공	87	40.1
어학연수 경 험	있다	32	14.7
	없다	185	85.3
어학연수 체류기간	1개월 정도	13	40.6
	3개월 정도	8	25.0
	6개월 정도	1	3.1
	1년 정도	4	12.5
	1년 이상	6	18.8
	소 계	32	100.0
계		217	100.0

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라 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검증)와 One-way ANOVA (일원변량분석), χ2(Chi-square) 검증, 그리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1) 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1) 대학에서의 문화교육 필요성

대학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24로,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학에서의 문화교육 필요성

구 분	외국어 전공 (N=130)		외국어 비전공 (N=87)		계 (N=217)		t	p
	M	SD	M	SD	M	SD		
대학에서의 문화교육 필요성	4.12	0.76	4.40	0.75	4.24	0.77	-2.67**	0.008

** p<.01

외국어 전공 여부별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대학에서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67, p<.01). 따라서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대학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도

문화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94로, 대학생들은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도

구 분	외국어 전공 (N=130)		외국어 비전공 (N=87)		계 (N=217)		t	p
	M	SD	M	SD	M	SD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3.92	0.69	3.97	0.67	3.94	0.68	-0.53	0.598

외국어 전공 여부별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별다른 차이 없이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능숙한 외국어 학습을 위한 해당 나라의 문화 습득에 대한 인식

능숙한 외국어 학습을 위한 해당 나라의 문화 습득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26으로, 대학생들은 외국어 학습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해당 나라의 문화를 함께 배우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전공 여부별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외국어 학습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해당

나라의 문화를 함께 배우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별다른 차이 없이 외국어 학습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해당 나라의 문화를 함께 배우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능숙한 외국어 학습을 위한 해당 나라의 문화 습득에 대한 인식

구 분	외국어 전공 (N=130)		외국어 비전공 (N=87)		계 (N=217)		t	p
	M	SD	M	SD	M	SD		
외국어 학습 위한 해당 나라 문화 습득에 대한 인식	4.25	0.62	4.28	0.54	4.26	0.59	-0.36	0.718

(4) 원어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교육

원어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22로, 대학생들은 원어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전공 여부별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원어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별다른 차이 없이 원어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원어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교육 필요성

구 분	외국어 전공 (N=130)		외국어 비전공 (N=87)		계 (N=217)		t	p
	M	SD	M	SD	M	SD		
원어민과 원활한 의사소통 위한 문화교육 필요 정도	4.18	0.62	4.26	0.66	4.22	0.63	-0.91	0.365

(5) 외국어 수업에서 해당 나라의 문화 내용 학습 중요성

외국어 수업에서 해당 나라의 문화 내용 학습 중요성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05로, 대학생들은 외국어 수업에서 해당 나라의 문화 내용 학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외국어 수업에서 해당 나라의 문화 내용 학습 중요성

구 분	외국어 전공 (N=130)		외국어 비전공 (N=87)		계 (N=217)		t	p
	M	SD	M	SD	M	SD		
외국어 수업에서 해당 나라 문화 내용 학습 중요성	4.01	0.56	4.11	0.54	4.05	0.56	-1.40	0.163

외국어 전공 여부별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외국어 수업에서 해당 나라의 문화 내용 학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별다

른 차이 없이 외국어 수업에서 해당 나라의 문화 내용 학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해당 나라의 문화내용 학습 시 언어에 대한 흥미 향상

해당 나라의 문화내용 학습 시 언어에 대한 흥미 향상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15로, 대학생들은 해당 나라의 문화내용을 학습할 경우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해당 나라의 문화내용 학습 시 언어에 대한 흥미 향상

구 분	외국어 전공 (N=130)		외국어 비전공 (N=87)		계 (N=217)		t	p
	M	SD	M	SD	M	SD		
해당 나라의 문화내용 학습 시 언어에 대한 흥미 향상 정도	4.09	0.63	4.24	0.78	4.15	0.69	-1.49	0.138

외국어 전공 여부별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해당 나라의 문화내용을 학습할 경우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질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별다른 차이 없이 해당 나라의 문화내용을 학습할 경우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문화교육의 언어능력 학습에 도움 정도

문화교육의 언어능력 학습에 도움 정도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99로, 대학생들은 문화교육이 언어능력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문화교육의 언어능력 학습에 도움 정도

구 분	외국어 전공 (N=130)		외국어 비전공 (N=87)		계 (N=217)		t	p
	M	SD	M	SD	M	SD		
문화교육의 언어능력 학습에 도움 정도	3.94	0.71	4.06	0.92	3.99	0.80	-1.02	0.310

외국어 전공 여부별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문화교육이 언어능력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별다른 차이 없이 문화교육이 언어능력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문화교육 없이 특정 나라 언어 습득 시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정도

문화교육 없이 특정 나라 언어 습득에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정도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15로, 대학생들은 문화교육 없이 특정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원어민과 의사소통이 그다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전공 여부별로는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문화교육 없이 특정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원어민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93, p<.01). 따라서 대학생들은 문화교육 없이 특정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원어민과 의사소통이 그다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문화교육 없이 특정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원어민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문화교육 없이 특정 나라 언어 배울 시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정도

구 분	외국어 전공 (N=130)		외국어 비전공 (N=87)		계 (N=217)		t	p
	M	SD	M	SD	M	SD		
문화교육 없이 특정 나라 언어 배울 시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정도	3.32	1.03	2.91	0.97	3.15	1.02	2.93**	0.004

** p<.01

2) 문화교육에 대한 요구도

(1) 외국어 수업에서 문화교육의 적당한 수업시간

외국어 수업에서 문화교육의 적당한 수업시간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이 외국어 수업에서 문화교

육 수업시간은 10~2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4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분 미만 19.8%, 20~30분 정도 19.4%, 30분 이상 13.8%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전공 여부별로는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외국어 수업에서 문화교육 수업시간은 10분 미만이 적당하다고 인식하였고,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은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10~2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별다른 차이 없이 외국어 수업에서 문화교육 수업시간은 10~2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외국어 수업에서 적당한 문화교육 시간

구 분	외국어 전공	외국어 비전공	계	χ2 (df)	p
10분 미만	28 (21.5)	15 (17.2)	43 (19.8)	4.26 (3)	0.235
10~20분 정도	55 (42.3)	47 (54.0)	102 (47.0)		
20~30분 정도	25 (19.2)	17 (19.5)	42 (19.4)		
30분 이상	22 (16.9)	8 (9.2)	30 (13.8)		
계	130 (59.9)	87 (43.7)	217 (100.0)		

(2) 문화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하는 영역

대학생들이 문화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하는 영역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이 문화교육에서 사회영역을 중

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하는 학생이 5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술영역 21.7%, 역사영역 18.0%, 기타 3.7%, 정치영역 2.3%, 경제영역 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문화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하는 영역

구 분	외국어 전공	외국어 비전공	계	χ2 (df)	p
정치영역	4 (3.1)	1 (1.1)	5 (2.3)	2.50 (5)	0.776
사회영역	71 (54.6)	43 (49.4)	114 (52.5)		
역사영역	20 (15.4)	19 (21.8)	39 (18.0)		
예술영역	28 (21.5)	19 (21.8)	47 (21.7)		
경제영역	2 (1.5)	2 (2.3)	4 (1.8)		
기타	5 (3.8)	3 (3.4)	8 (3.7)		
계	130 (59.9)	87 (43.7)	217 (100.0)		

외국어 전공 여부별로는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문화교육에서 사회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였고,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은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역사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별다른 차이 없이 문화교육에서 사회영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문화교육에서 필요한 내용

문화교육에서 필요한 내용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문화교육에서 필요한 내용

구 분	외국어 전공 (N=130)		외국어 비전공 (N=87)		계 (N=217)		t	p
	M	SD	M	SD	M	SD		
문화교육 내용과 방법의 구체적 제시	3.78	0.70	3.94	0.64	3.85	0.68	-1.68	0.094
수업시간 확보	3.74	0.73	3.90	0.67	3.80	0.71	-1.62	0.107
문화내용을 정리한 교재	3.75	0.85	3.51	0.95	3.65	0.90	1.95	0.053
효과적인 시청각 보조자료	4.22	0.72	4.34	0.70	4.27	0.71	-1.24	0.217
문화교육에 대한 강사의 전문적인 지식	4.17	0.92	4.23	1.00	4.19	0.95	-0.46	0.645

문화교육 내용과 방법의 구체적 제시 및 수업시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문화내용을 정리한 교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효과적인 시청각 보조자료와 문화교육에 대한 강사의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은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별다른 차이 없이 문화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과 방법의 구체적 제시 및 수업시간 확보, 문화내용을 정리한 교재, 효과적인 시청각 보조자료, 그리고 문화교육에 대한 강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문화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점

대학에서 문화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이 대학에서 문화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시청각 자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30.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강좌 개설 28.6%, 우수한 교수진 확보 16.1%, 보조교재 개발 12.4%, 외국인 초청 강의 12.0%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전공 여부별로는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에서 문화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시청각 자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은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우수한 교수진 확보와 외국인 초청 강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 2=11.19$, $p<.05$). 따라서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문화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시청각 자료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에서 문화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시청각 자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문화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점

구 분	외국어 전공	외국어 비전공	계	χ2 (df)	p
문화교육 강좌 개설	37 (28.5)	25 (28.7)	62 (28.6)	11.19* (4)	0.024
보조교재 개발	18 (13.8)	9 (10.3)	27 (12.4)		
우수한 교수진 확보	14 (10.8)	21 (24.1)	35 (16.1)		
외국인 초청 강의	13 (10.0)	13 (14.9)	26 (12.0)		
시청각 자료 확충	48 (36.9)	19 (21.8)	67 (30.9)		
계	130 (59.9)	87 (43.7)	217 (100.0)		

* p<.05

(5) 문화교육 문화 요소의 습득 필요성

문화교육 문화 요소의 습득 필요성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언어의 특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관용표현과 신체 언어, 신체 접촉, 의복문화, 주거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식생활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14, p<.05). 생활예절에 대한 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4> 문화교육 문화 요소의 습득 필요성

구 분	외국어 전공 (N=130)		외국어 비전공 (N=87)		계 (N=217)		t	p
	M	SD	M	SD	M	SD		
언어의 특징(시제 등)	3.94	0.77	3.87	0.71	3.91	0.74	0.63	0.530
관용표현(속담, 관용구 등)	3.95	0.77	3.98	0.73	3.96	0.75	-0.22	0.824
신체 언어, 신체 접촉	3.88	0.68	3.98	0.68	3.92	0.68	-0.98	0.327
의복문화	3.63	0.80	3.78	0.69	3.69	0.76	-1.48	0.140
주거문화	3.94	0.68	4.09	0.64	4.00	0.67	-1.67	0.097
식생활문화	4.23	0.63	4.41	0.60	4.30	0.62	-2.14*	0.034
생활예절	4.35	0.63	4.49	0.61	4.41	0.63	-1.72	0.087
교통・통신	3.95	0.82	3.89	0.83	3.93	0.82	0.61	0.545
법과 제도	3.82	0.79	3.89	0.83	3.84	0.80	-0.63	0.531
놀이 문화, 여가문화	3.95	0.76	3.87	0.76	3.92	0.76	0.69	0.491
교육제도	3.78	0.68	3.67	0.82	3.74	0.74	1.11	0.268
경제	3.70	0.74	3.61	0.83	3.66	0.78	0.84	0.400
종교, 철학	3.42	0.82	3.80	0.83	3.57	0.85	-3.40**	0.001
관습(축제, 관혼상제 등)	3.98	0.66	4.16	0.78	4.05	0.72	-1.81	0.072
대중매체	3.92	0.75	3.78	0.90	3.87	0.81	1.21	0.226
역사	3.81	0.90	4.00	0.81	3.88	0.87	-1.61	0.109
전통문화	3.72	0.83	3.97	0.80	3.82	0.82	-2.21*	0.028
지리 정보	3.71	0.85	3.70	0.90	3.71	0.87	0.05	0.957
국가 상징(국기, 국가 등)	3.85	0.82	3.74	0.90	3.80	0.85	0.94	0.350
기후, 날씨, 계절	4.02	0.79	4.05	0.81	4.03	0.79	-0.28	0.781

* p<.05, ** p<.01

교통·통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놀이 문화, 여가문화와 교육제도, 경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 철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40$, $p<.01$). 관습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대중매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21$, $p<.05$). 지리 정보와 국가 상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후, 날씨, 계절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식생활문화와 종교 및 철학, 그리고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른 문화교육의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교육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문화교육의 기초 자료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대학에서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관심도가 높았다.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보다 대학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에서는 어휘/문법교육, 의사소통교육 등은 문화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 진단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은 외국어 학습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해당 나라의 문화를 함께 배우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원어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문화교육 없이 특정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원어민과 의사소통은 그다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화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 체계 등 문화적인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은 외국어 수업에서 문화교육 수업시간은 10~2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문화교육에서는 사회영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문화교육은 총체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문화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에서 문화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시청각 자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에서 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에 적합한 교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시설 및 자료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문화요소들을 사진, 그림 등 시각 자료를 통해 학습하도록 하여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외국어 전공 여부에 따라 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문화교육 시에는 학생들의 외국어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화교육의 내용은 단지 학생들의 흥미 위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욕구와 필요, 지적 수준에 맞는 내용을 학습하게 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화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설문조사에 의해 알아보았으므로, 후속연구는 면담법, 참여관찰 등의 질적 연구의 병행을 통해 학생들의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문화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요구도를 외국어 전공 여부 변인에 따라서만 파악하였으므로, 향후 학습자의 다양한 변인에 따라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보유, 「문화언어학과 언어문화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pp. 1-12.

강승혜, 「재미교포 성인 학습자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분석연구」, 『한국어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 pp. 1-25.

권오현,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국어교육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pp. 247-274.
김동섭,『언어를 통해 본 문화이야기』, 서울: 만남, 2003
김대행,「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국어교육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pp. 157-180.
김은식,「영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주관,「언어를 통한 문화교육: 민족 과학방법의적용」,『언어와 문화』 3-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7, pp. 1-29.
김진우,『언어와 문화』,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6.
김현미,『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젠더, 인종, 계층의 경계를 넘어』,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5.
민현식,「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한국어문화학』 3-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pp. 137-180.
배현숙,「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현황 및 문제점」,『이중언어학회지』 21, 이중언어학회, 2002, pp. 177-198.
서하석,『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와 문화의 이해』, 서울: 한빛문화, 2008.
우한용,「언어활동으로서의 문학」,『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pp. 211-238.
유수연,『문화 간 의사소통의 이해: 다문화시대 의사소통방법』, 한국문화사, 2008.
윤여탁,「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 14-1, 2000, pp. 131-152.
임경순,「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안 연구」,『한중 인문학연구』 14, 한중인문학회, 2005, pp. 5-26.
_____,「문화 중심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수, 학습 방법 연구」,『한중 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2006, pp. 293-320.
정은경,「학습자 중심의 문화교육 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정동빈 외,『문화 교육』, 서울: 경문사, 2004.
정현숙 외,『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7.
조항록,「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pp. 199-219.
주시동,「초급 단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Chen, G. M. and Starosta, W. J, *Foundation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5.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21th Century,*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2006.

Neuliep, J. W,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Contextual Approach*, 4th ed. Los Angeles: Sage, 2009.

Rosalid, G, *Langue et culture, mariage de raison?*, 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2009.

Analysis of the Awareness and Needs for College Students about Cultural Education of Foreign Countries

Yang, Mi-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college students about cultural education of foreign countries and their needs for that in consideration of whether they majored in foreign language or not. It's basically meant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revitalization of cultural education of foreign countries.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the college students in awareness of cultural education about other countries and needs for that according as they majored in foreign language or not. Therefore there should be a consensus about cultural education among students when they receive that education, and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materials is required to step up the revitalization of cultural education about foreign countries.

Key words: majoring in foreign language, cultural education,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cultural education, needs for cultural education

양미애
소속: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불문과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쌍용금호@ 208동 502호
전화번호: 016-428-5315
전자우편: bonbonheur@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2월 28일 투고하여
2013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30일 게재 확정함.